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 7차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비교 연구  
- 현대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조 윤 희

# 7차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 성역할 비교 연구

- 현대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조 운 희

# 인 준 서

조윤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현대문학 단원의 성차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소설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대상은 국어교과서의 본문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습활동이나 선택학습에서도 많은 소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 작품 자체의 내용보다는 본문에 수록된 글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문학교육과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역할에 대해 살펴본 후, 학교교육과 성역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특히 문학단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문학을 통해서 사회적 상황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에 반영된 사회상을 문학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속의 인물들의 성역할에 대해 고찰하기 위함이다.

작품을 살펴보기 이전에 1차적으로는 작가와 등장인물의 성비를 비교하여 표면적으로 얼마나 균형 있게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전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는 90%이상이 남성작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성의 작가나 작품이 수록되게 된다면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가라는 직업에는 남성이 더 적합한 것 또는 남성의 글이 더 가치 있는 글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다. 국어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작가의 성별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토대로 각 작품을 살펴보았다.

국어교과서의 모든 작품을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적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과 다양한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 몇 편씩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고정적 성역할을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4편을, 반대로 다양한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 6편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정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는 현모양처와 모성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어머니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직업군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대부분이 학생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제일 처음 배우게 되는 성역할이 부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양한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 6편은 주체적인 여성상, 사회 참여적 여성상, 내면 성찰의 여성상을 보여주는 작품과 동행과 소통의 남성상, 신념 표현의 남성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양한 성역할의 모습을 제시하였기에 학년별,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학습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성역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과 더불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양적으로도 성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체적 여성, 사회참여적 여성 또는 동행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성 등과 같이 양성평등한 성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더 많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범위와 방법	8
II. 문학교육과 페미니즘	12
1. 성평등과 교육의 역할	12
2. 성역할 사회화와 학교교육	15
III. 현대소설 단원의 작가 및 작품 비교와 필요성	22
1. 작가의 성별 비교	22
2. 등장인물의 성별 비교	29
3. 문학교육과 성역할	35
IV. 현대소설에 나타난 성역할의 유형	41
1. 고정적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	41
1) 현모양처, 모성 이데올로기의 여성상	41
2)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남성상	48
2. 다양한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	52
1) 주체적인 여성상	52
2) 사회 참여적 여성상	54

3) 내면 성찰의 여성상 .....	57
4) 동행과 소통의 남성상.....	61
5) 신념 표현의 남성상.....	66
V. 결론 및 제언.....	69

<표 차례>

표 1 중·고등학교 현대소설 남녀 작가와 작품 수 ..... 22

표 2 중·고등학교 현대소설의 등장인물 남녀 구성 ..... 29

표 3 문학 영역 성취기준..... 37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또 하나의 성을 갖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학습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이때 성은 예전부터 사회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기대를 결정하는 하나의 범주로 작용하여 왔다. 즉, 인간의 사고나 행동은 그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치는 시대가 변하고 사회구조가 변함에 따라 그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성역할이란 “인간의 행위나 태도와 관련하여 남녀별로 적절한 것으로 규정된 문화적 기대치”로 표현되어 있다(허혜경·박인숙,2010). 즉, 한 사회의 문화가 개인의 성역할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모든 사회·문화는 각각의 성에 고유한 행동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성역할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은 개인과 시대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어 왔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화 사회에서처럼 육체적 노동이 생산성과 즉결되던 시대에는 남성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노동을 하는데 더 적합했고 우월했다. 그렇기에 과거 사회구조에서는 남성의 역할이 더 중시되었고, 그러면서 남성이 더 우월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육체적 노동보다는 창의력이나 감성 등이 더 중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전의 성역할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더 이상은 생

산이 힘과 즉결되지 않고 지식과 감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물학적인 성구분은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현대사회에서는 양성성에 주목하여 바람직한 성역할의 모습을 찾고 있다.

양성성이란 “여성성과 남성성을 공유한 사람. 즉,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 이른바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 중 바람직한 것만이 결합하여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김혜수·허혜경, 2010) 즉, 이전의 사회에서처럼 어느 특정성별이 더 중시되거나, 여성성과 남성성을 대립되는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더 이상 성역할을 생물학적 성에 한정시켜 보지 않고 개인이 처한 환경, 개인의 경험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기술이나 능력 정도로 보는 것이다. 더불어 양성적인 사람은 바람직한 남성성 반응과 바람직한 여성성 반응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심리구조 때문에 행동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김태정, 2003) 현대사회에 필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는 가부장적인 관습이나 이에 따른 인식이 남아있어 개인의 양성성 발현이 쉽지 않다.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양성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개인의 양성성은 발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의 의식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 때 개인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중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이미 가부장적 사회의 성역할이 고정화 된 성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 성역할을 형성해나가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변화하며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칠지 구

체적으로 정해놓은 교육의 핵심으로 당대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교육 목표(최미숙, 2009)라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하는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최미숙, 2009)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총 9차례 걸쳐 개정되었고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과서도 개정되어 왔다.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많은 연구 결과가 ‘성편향적’임을 나타내고 있다.<sup>1)</sup>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성적 불균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먼저 우리 사회의 관습과 기존세대의 의식이 여전히 강한 성차별적 성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이예진, 2007).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란 기존 세대의 의식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성차별적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교과서의 심의가 교과서 개발 이전이나 개발 단계에서가 아닌 개발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져 적극적인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정해숙, 김연, 2002). 표면적으로는 교과서의 개발 기준에 남녀의 성비가 균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면의 요소는 여전히 성차별의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의 심의가 개발 이후 이루어져 시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 나타는 성차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있지 않고 그 이면에 내재되어 교육과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교과서 자체에서 남녀차별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글의 작가 성비나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 속 인물의 역할, 활동 영역, 출현 비율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과서의 편찬 주체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

1) 이와 관련된 자료는 선행연구검토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자는 교과서를 통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는 학습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문학작품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설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소설 속의 다양한 인물은 청소년기의 왕성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소설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 특히 소설은 학습자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교과서에는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가치를 담은 제재가 많이 수록되어 교과서가 구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양성적인 인간이 더욱 유용하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구분처럼 이분법으로 나눈 정형화된 성역할에 대한 교육보다는 양성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문학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내재된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가치가 정형화되지 않도록 교과서의 문학작품의 구성과 내용은 이에 알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 속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서가 개정되어 표면적으로는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는 상당 부분 변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개정 교과서를 살필 것이다.

## 2. 선행 연구 검토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도 달라졌다. 그 때 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 성역할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는데, 대다수가 사회, 도덕, 기술·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대상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어교과서에 대한 연구 중 특히 성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제 4,5차 교육과정 개정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밝힌 후 그에 따라 교과서에서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았다.<sup>2)</sup>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분석을 통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시되는 직업을 살펴보면 남성은 전 직동에 다양하게 종사하는 반면, 여성은 주부, 교사, 간호사 등의 한정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살펴보아 남성은 지성적, 지도적, 용감, 적극적, 독립적, 공격적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고, 여성은 비지성적, 소극적, 의존적, 순종적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전반에 성별 고정 관념을 강화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한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내재된 성역할 비교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특히 현대문학 단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sup>3)</sup> 현대문학 단원에서도 소설만을 대상으로 하

2) 김정자 외,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6.

김형덕 외,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6.

3) 정금자,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 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1998.

서신미, 「중학교 소설 교재의 작중 인물 연구: 여성주의 비평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1999.

이미향, 「중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 현대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

거나 소설과 희곡 모두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다.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부분적으로는 4,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는 성형평성이 제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성편견적 교육을 내용을 담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나타난 성형평성의 문제는 단순히 등장인물의 구성 분포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균형 면에서는 이 전 교육과정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과서의 내용 속에 포함된 메시지 등 겉은 잘 드러나지 않는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다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밖의 다른 연구들 역시 연구방법이나 결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 7차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된 성역할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다.<sup>4)</sup> 오재립과 정해숙(2002)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전체를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국어교과서의 경우 수록된 삽화에서 여성 등장인물의 가정 및 육아 활동 비율은 제 6차 때와 마찬가지로 남성 등장인물의 가정 및 육아 활동 비율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삽화에 등장하는 여성은 대부분 앞치마를 통해 가사 노동의 책임자로 상징화

---

육대학원, 2000.

이정례,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제 6차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군산대 교육대학원, 2000.

정아정, 「현행 중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3.

4) 오재립, 정해숙,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장순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국어교과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4.

김애희,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분석」, 부산대 교육대학원, 2004.

심혜원,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인물의 성역할 분석」, 홍익대 교육대학원, 2005.

정현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2006.

전유선,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8.

이하영, 「국어교과서 속의 여성 인물 재현 양상 연구: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9.

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삽화나 사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대체로 사회·도덕 교과서에 이루어졌는데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점이 의의가 있다. 그 결과 국어 교과서의 제재뿐 아니라 삽화나 사진 속에서도 성차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적 언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교과서 전반에 내재한 성차별적 어휘의 문제를 제기하며, 교과서에는 남성차별 표현보다는 여성차별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에 형상화 된 여성인물에 집중했다면 어휘나 표현을 대상으로 한 점이 다른 연구와의 차이였다. 여성 인물의 형상화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휘의 측면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휘나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5)</sup>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초,중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체육, 수학·과학, 기술·가정, 예·체능, 영어과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6차나 7차 교과서 분석 결과에 비해 더 이상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여전히 여성 인물이 처한 배경을 가정으로 남성은 야외나 일터로 그리면서 성별에 따른 영역의 고정관념이 투영되고 있음을 말하였다. 결국 사진이나 삽화 등에서는 과거보다는 여성 인물의 비율이 약간 증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은 주변적 인물로 그리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 후 학교 급별의 교과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마지막에는 정책 제언으로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 주도 하에 진행된 연구인데, 다양한 측면에서 교과서 내에 여전히 성차별적 요소가 상당함을 지적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4차 교육과정부터 개정 7차의 교과서를

---

5) 정해숙, 구정화, 최윤정,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0.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여전히 교과서 내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양상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치는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대다수의 교과서가 학교 급별로 볼 때는 초·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에 반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기의 연구에서는 이전에는 제재에만 중점을 두어 연구하던 것이 삽화나 사진, 언어표현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연구 범위와 방법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 채택, 보급되는데, 국정인 1종 교과서와 국가의 검정을 거친 2종 교과서 교과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가 있다.<sup>6)</sup> 제 7차 교육과정까지는 중·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는 1종의 국정교과서였고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인 독서, 문학, 문법, 작문, 화법교과서만 검정교과서였다. 하지만 2007 개정안에 따른 교과서부터는 국어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다. 현재 2010년에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23종<sup>7)</sup>이 출판되었고, 2011년에 중학교

6) 최미숙,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9. p.76.

7) 앞으로 교과서를 표기할 때는 약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23종의 약자는 다음과 같으며 출판사는 가나다순으로 표기하였고, 동일 출판사일 경우 대표저자의 가나다순으로 표기하였다.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1. 교학사	김형철 외	교학사(김)	13. 새롬교육	권영민 외	새롬(권)
2. 교학사	남미영 외	교학사(남)	14. 좋은책	이승원 외	좋은책(이)
3. 금성출판사	윤희원 외	금성(윤희)	15. 웅진씽크빅	이충원 외	웅진(이)
4. 대교	박경신 외	대교(박)	16. 유웨이중앙	이숙 외	유웨이(이)
5. 대교	왕문용 외	대교(왕)	17. 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사(방)

2학년 교과서 15종<sup>8)</sup>과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16종<sup>9)</sup>이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현대문학 단원의 성차별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현대문학에서도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필 것이며 본문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학습활동이나 선택학습에서도 많은 소설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작품 자체의 내용보다는 본문에 수록된 글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국어생활 교과서의 작품을 별도로 다루지 않는 것은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작품과 연계하여

6. 두산동아	우한용 외	두산(우)	18. 지학사	이용남 외	지학사(이)
7. 디딤돌	김종철 외	디딤돌(김)	19. 창작과비평	김상옥 외	창비(김)
8. 디딤돌	이삼형 외	디딤돌(이)	20. 천재교육	김대행 외	천재(김)
9. 미래엔컬처	윤여탁 외	미래(윤)	21.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노)
10. 미래엔컬처	이남호 외	미래(이)	22. 천재교육	박영목 외	천재(박)
11. 박영사	송하춘 외	박영사(송)	23.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해냄(오)
12. 비유와상징	조동길 외	비상(조)			

8)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15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1. 교학사	남미영 외	교학사(남)	9. 새롬교육	권영민 외	새롬(권)
2. 금성	윤희원 외	금성(윤)	10. 좋은책	이승원 외	좋은책(이)
3. 대교	박경신 외	대교(박)	11. 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사(방)
4. 대교	왕문용 외	대교(왕)	12. 지학사	이용남 외	지학사(이)
5. 디딤돌	김종철 외	디딤돌(김)	13. 창작과비평	김상옥 외	창비(김)
6. 미래엔컬처	이남호 외	미래(이)	14.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노)
7. 미래엔컬처	윤여탁 외	미래(윤)	15.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해냄(오)
8. 비유와상징	조동길 외	비상(조)			

9)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16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1. 교학사	남미영 외	교학사(남)	9. 유웨이	박호영 외	유웨이(박)
2. 금성출판사	윤희원 외	금성(윤)	10. 지학사	박갑수 외	지학사(박)
3. 더텍스트	김병권 외	더텍스트(김)	11. 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사(방)
4. 두산동아	우한용 외	두산(우)	12. 창작과비평	문영진 외	창비(문)
5. 디딤돌	이삼형 외	디딤돌(이)	13. 천재교육	김대행 외	천재(김대)
6. 미래엔컬처	윤여탁 외	미래(윤)	14. 천재교육	김종철 외	천재(김종)
7. 비유와상징	조동길 외	비상(조)	15. 천재교육	박영목 외	천재(박)
8. 좋은책	이승원 외	좋은책(이)	16.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해냄(오)

국어생활의 활동이 구성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생활의 특성상 소설을 감상하기보다는 창작활동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 제시되어도 짤막한 자료글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단원에 제시된 작품만 본다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국어생활에 수록된 작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만 다루기로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살펴보는 분석하는 연구 방법은 페미니즘 비평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페미니즘 비평 방식 중에서도 여기서 취할 방식은 여성이미지 비평과 여성 작가 비평이다. 여성미이지 비평은 여성독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고찰하고 또 어떻게 여성상이 왜곡되어 나타났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필자의 성비 또는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비율, 그리고 작품 속에 그려진 여성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고려해야 할 성평등적 관점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제시한 오재림 외(2002: 148)의 제안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과서 심의를 위한 성평등적 관점과 관련하여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 문제, 등장인물의 성별 비중 문제, 성별 특성, 남녀 지위 및 역할 관계, 언어 편견 문제, 양성평등 반영 정도, 양성평등 의식 교육 기회’의 8가지 항목에 다른 25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10) 성평등 관련 교과서 심의기준안 지표( 오재림·정해숙,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관심분야	대분류	지표항목
소극적 양성평 등	1.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	1. 가정생활에서 등장인물의 남녀비율 2. 사회생활에서 등장인물의 남녀비율 3. 역사적 사실에서 등장인물의 남녀비율 4.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의 남녀비율
	2. 등장인물의 성별 비중	5. 가정생활에서 주인공의 남녀비율 6. 사회생활에서 주인공의 남녀비율 7. 역사적 사실에서 주인공의 남녀비율 8.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남녀비율
	3. 등장인물의 성별 특성	9. 등장인물 남녀의 외모 묘사

Ⅲ장에서는 양적으로 교과서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요소를 밝혀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작가의 성비와 작품에 드러나는 주요 인물의 성비를 비교하고자 한다. 교과서에 진정한 양성평등이 구현되려면 작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수의 Ⅳ장에서는 페미니즘 비평으로 작품을 읽어내며 여성 인물의 모습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개정 국어 교과서 108권의 수록된 모든 작품을 다룰 수 없으므로 여성인물이 주인공인 경우, 여성 인물이 주변인물인 경우, 여성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10. 등장인물 남성의 정서표현 방식 11. 등장인물 남성의 성격 묘사 경향
	4. 남녀 지위 및 역할 관계	12. 가정생활에서 남성의 성역할 13.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성역할 14. 학습활동에서 남녀 등장인물의 놀이 및 운동 15. 여성의 직업 활동 영역 묘사 16. 남성의 직업 활동 영역 묘사 17. 역사적 사실에서 여성 지위 및 표현 방식
	5. 언어편견의 문제	18. 남성 중심적 용어 사용 여부 19. 기사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표현하는 방식
적극적 양 성 평 등	6. 양성평등적 성역할의 식 반영 정도	20. 가정생활에서 등장인물 남녀의 역할 기술 방식 21. 사회생활에서 등장인물 남녀의 역할 기술 방식 22. 역사적 사실에서 등장인물 남녀의 역할 기술 방식
	7. 양성평등의식 교육기 회 반영 여부	23.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다룬 성차별 문제의 제시 여부 24. 남녀 학생의 다양한 진로 모색 기회 여부 25. 여성의 인권 및 권리 내용 제시 여부

## II. 문학교육과 페미니즘

### 1. 성평등과 교육의 역할

역할이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의되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며 규범화된 행위의 규칙을 만들어 낸다. 이런 의미에서 성역할이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성에 따른 특정한 행위의 규칙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즉, 성역할이란 사회가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 기대를 말하는 것이다.

성역할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성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남녀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의미의 성(gender)이다.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의미하지만, 사회적 의미의 성은 남녀 간의 심리적,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문화적 의미로서의 성은 사회적 정체성에 의해 사회적 경험과 훈련에 따라 남녀의 기질이 습득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성역할 개념은 사회적 지위에 관련된 가치·태도·인성·특성 등이 문화 기대에서 오는 행동 규범으로서 문화가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sup>11)</sup>

이와 같이 행위나 태도가 남녀별로 적절한 것으로 규정된 문화적 기대치를 성역할이라고 한다면 성역할 사회화란 사회 성원으로서 필요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문화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 양식을 가질 것이 기대되며 가정이나 학교 교육을

---

11) 설민호, 「중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5.

통해서 이러한 기대는 전수되고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역할의 사회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성에 따라 다르다고 믿는 전형적인 특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인 성관 관련이 있으나 그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는 자라면서 대체로 두 살 정도가 되면 자신의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를 성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인은 어린 시절에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 정체감을 가진 후,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해 가는 성 정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성 정형화 과정을 통해 타고난 성으로 인해 역할이 주어지는 것으로 행위나 태도가 남녀별로 적절한 것으로 규정된 문화적 기대치를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성역할 정체감은 성 정형화 과정의 결과 각 개인에 의해 성역할 행동이 어느 정도씩 습득되면서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이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속한 사회에서 남녀 각 성에 적합하다고 기대되는 가치, 성격, 특성 등을 획득, 내면화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성역할 인식은 성평등한 인식이다. 이것은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성별에 따른 제약 없이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성평등한 인식에 따르면 남녀가 생물적으로는 다르지만 성향이나 취향에서 단순하게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성향을 갖춘 양성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양성성 개념을 설명한 Bem(1974: 156, 정해숙·구정화·최윤정, 2010 에서 재인용)은 남성

성, 여성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성향이 어느 한 성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어느 특성이 강하냐에 따라 크게 남성적 유형, 여성적 유형, 양성적 유형, 미분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양성적 유형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적응력이 높고 유연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며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인간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양성성을 인정하는 개인은 자신 속에 있는 어느 하나의 성적인 특성만을 강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따라서 양성성 인식을 하는 개인은 성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평등 의식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나 행동, 태도, 역할 등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성평등 인식에서는 양성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그런데 양성성 이해와 관련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 평등하게 인식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성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양성성의 강조가 남성 지배를 더 인정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조옥라 외, 2002:19 재인용)

이에 따라 성평등에서 강조하는 것은 삶의 일상적인 사회, 경제, 정치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지는 삶의 모습과 제도이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란 결국 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진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의 가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 내에서 양성성에 대한 인식과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성평등적 인식을 갖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현실로 인해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별체계를 학습하는데, 이 때 성역할 고정관념에 익숙해진다면 양성평등 의식 형성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성역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 2. 성역할 사회화와 학교교육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공식적, 비공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는 사회화 과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역할 모델이 된다.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이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과 성역할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부모는 가정생활에서 부부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자녀의 성역할 학습을 위한 동일시나 모방의 대상이 된다.(장휘숙, 2001) 이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남아아 여아에 대한 양육태도를 달리 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육의 차이는 남아에게는 남성성을 강화시키고 여아에게는 여성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 양성성을 가진 성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는데 중요한 사회화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sup>12)</sup>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교 행정가들이 학교에서 구현되어야 할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교 행정가들이

12) 정혜숙 외,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조사 및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pp.64~78.

양성평등 교육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50.4%)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녀 학생이 동일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23.8%)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역할의 사회화는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교육의 내용으로서 교과서와 비공식적인 교육자료 등에 기술되거나 묘사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것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성역할과 관련한 교육 내용은 공식적인 교과서와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 및 콘텐츠 등에 담긴 다양한 텍스트와 삽화 및 사진 자료에 의해 구성된다.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 자료가 고정된 성역할을 사회화 하는 방식은 주로 성불평등한 내용의 서술이나 삽화의 묘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해숙·구정화·최윤정, 2010 에서 재인용)

이들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로 남성 인물의 가정 내 표현 비율과 직업 활동을 하는 여성 인물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주요 역할을 하는 집단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이다.

둘째,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나 삽화 등에서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서 여성은 교사, 간호사, 판매직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남성은 기술 및 전문직, 입법관리직, 군인과 경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성별 직종 분리는 직업 세계에서 남성이 지배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직종과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구별되는 현상으로 이렇게 남성이나 여성 중 한 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직종을 성별 지배 직종이라 한다.

사회적인 성역할고정관념으로 형성된 성별 직업 능력과 일의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직업에서의 성차별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직업 선택에서 개별 수요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직종의 일을 찾게 되면서 성별 고정관념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성별 직종 분리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직업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셋째,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라는 등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리하는 서술이나 묘사가 많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리하여 내용을 제시하는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성성 발현을 억제하고 남성이나 여성한 특성만을 발달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른 성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그것 또한 자신의 한 특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의식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학교교육이 표면적으로는 가치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교육 재료나 교육 실천에서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별체계를 그대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가치개입적 측면이 강하다. 여성주의 교육학자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들은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및 남성의 이해와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며 그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 및 성불평등을 다음 세대에서 재현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성평등 인식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다. 이에 따라 적합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육에서 성평등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성평등 자체를 교육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육내용에서

성평등을 가르치는 것, 즉 성평등 그 자체에 대한 내용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평등 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기술하는 텍스트와 그와 관련하여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그림, 사진 등의 삽화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그래서 하나의 교과서는 교수학습이 일어나야 할 학습내용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텍스트와 삽화를 선정하고 이것을 편집한 결과로 제공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어떤 가치나 관점이 개입되거나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가치나 관점을 교육하는 것은 대부분 교육내용과 삽화의 선택과 배제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는 텍스트와 삽화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성불평등한 가치가 개입될 수도 있고 양성평등적 관점을 담아낼 수도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은 교과서가 양성평등 관점을 담아내기 보다는 성불평등한 가치를 담아내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교과서가 담아내는 성불평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의는 주로 교육 내용이 6가지 측면에서 성불평등현상을 담고 있다고 본다.(Sadker, Sadker and Long, 1997; 최정윤, 2006: 21-22에서 재인용)

첫째는 언어적 편견이다. 이것은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남성 중심의 용어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와 달리 여교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남자 교사는 교사로 인식하여 중심적인 인물로 여기고 ‘여’교사는 이미 주변적인 인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을 일반적으로 표기하고 그에 반하여 여성을 지칭하는 개별적인 표현을 넣는 것과 같은 방식의 언어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교과 내용 구성에서 언어적 편견을 통한 성불평

등 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이것은 태도나 행위, 직업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내용으로서 서술 내용이나 삽화에서 가정역의 활동은 당연히 여성이, 정치나 경제 활동은 당연히 남성이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희소성이다. 이것은 교육내용을 서술하는 내용이나 삽화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하거나 역사적으로 공헌한 여성 인물을 배제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여성인물의 등장이 희소한 것은 한 사회에서 여성이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중요성이 약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남성을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로 인식하게 할 측면을 키워주기에 문제가 된다.

넷째는 불균형이다. 이것은 어떤 이슈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소위 남성 문화에 속하는 경험과 관점을 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교재 내용에서 어떤 상황이나 집단 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은 다양한 관점을 갖지 못하게 하며, 학생들의 지식을 한정시키고 현실을 왜곡시키게 된다. 그 결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 문화의 경험과 공헌, 참여 관점에 대해 매우 제한된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섯째는 비현실성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개선되었으며 성평등이 실현되고 있음을 그럴듯하게 제시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토론을 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생활에서 부딪히는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실 사회의 성불평등 문제를 단순한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기에 문제가 된다.

여섯째는 분절화이다. 이것은 여성이 역사나 사회에 공헌한 내용 등을 글상자 등으로 주변 처리하여 교과서의 주요 내용과 별도로 다루는 것을 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여성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주요 내용에 나오는 남성들의 업적 등과 비교하여 덜 중요하거나 부수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며 단순한 흥밋거리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성의 일이나 공헌을 일상적이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처럼 인식하게 할 가능성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성평등적 교과서에서 본문이나 삽화 등의 내용, 그리고 제시되는 방식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평등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정해숙·구정화·최윤정, 2010 에서 재인용)

첫째는 등장인물의 비중과 분포에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의 내용 서술이나 삽화 등을 통틀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비중은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 남녀의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며, 분포는 역사적 인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이나 삽화에서 비율에 형평성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는 등장인물의 역할과 특성에서 성역할 정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우 정형화 된 역할을 제시하거나 성격, 외모 등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성역할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 이점에서 성역할의 정형성에서 벗어나는 진술과 묘사가 중요하다.

셋째는 등장인물의 활동 및 직업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등장인물의 활동이나 직업, 신분 등에서 성차별적으로 서술되거나 묘사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활동이 축소되어 설명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너무 과장되게 설명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넷째는 젠더관계에 대한 묘사에서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위상이 사실과 맞게 부합되어 서술되

는 것인지, 또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축소하거나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으로 과장되게 묘사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여성 관련 이슈 및 성평등 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모든 교과가 이런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도덕, 실과 등의 관련 교과에서 교육 내용으로서 성평등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다룰 때 그 내용이 부차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의 핵심적인 상황들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언어 표현이나 용어들이 많은데 교과서 서술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나 표현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 Ⅲ. 현대소설 단원의 작가 및 작품 비교와 필요성

#### 1. 작가의 성별 비교

개정 국어 교과서는 중학교 1,2학기와 고등학교 상,하권을 통틀어 총 108권이다.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교과서는 출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학교는 1,2학년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생활국어까지 합하면 총 184권인 본고에서는 생활국어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총 108권을 대상으로 하여 작가의 성비를 비교하였다. 먼저 중·고등학교의 현대소설수록 양상과 작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작가	작품	수록된 교과서	
남성 작가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비상(조)2-1	
	구효서	이발소 겨울	두산(우)상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창비(문)하	
	김용익	꽃신	천재(노)2-1	
	김원일	오마니별	비상(조)1-2	
	김유정	동백꽃	대교(박)1-1, 비상(조)1-1, 지학사(이)1-1, 교학사(남)2-1, 디딤돌(김)2-2, 미래엔(이)2-2, 새롬(권)2-1, 더텍스트(김)하	
			만무방	비상(조)하
			봄봄	디딤돌(이)상, 천재(김대)하
	김은국	잃어버린 이름	교학사(남)2-2	
	김정현	아버지	금성(운)하	
	김훈	칼의 노래	디딤돌(이)상	
	노양근	열세동무	창비(김)2-1	
	박상률	봄바람	새롬(권)1-1	
		생일선물	해냄(오)2-1	

박영준	모범 경작생	지학사(이)1-2
박태원	영수증	미래엔(이)2-1
	천변풍경	지학사(박)상
성석제	약방 할매	대교(왕)1-1
	천국에는 사다리가 없다	더텍스트(김)상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두산(우)하
심훈	상록수	교학사(남)2-1, 대교(왕)1-1, 지학사(방)1-1
안도현	연어	좋은책(이)2-2
염상섭	만세전	좋은책(이)상
	삼대	천재(김대)상
오영수	고무신	해냄(오)2-1
	후조	두산(우)1-2
위기철	아홉 살 인생	교학사(김)1-1, 미래엔(윤)1-1, 교학사(남)2-2
윤대녕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지학사(방)상
윤문원	시간이 닿을 때까지	비상(조)1-2
윤후명	하얀 배	천재(박)상
윤홍길	기억 속의 들꽃	대교(왕)1-2, 좋은책(이)2-1, 천재(노)2-2
	땀감	창비(김)2-1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디딤돌(이)하
	장마	천재(김중)하
이광수	무정	유웨이(박)하, 천재(김중)하
이동하	전쟁과 다람쥐	웅진(이)1-2
이문구	관촌수필	두산(우)상
	유자소전	좋은책(이)하, 좋은책(방)하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천재(김)1-1
	초한지	천재(김대)상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대교(왕)1-2
	수암	미래엔(이)1-2,
이범선	표구된 휴지	더텍스트(김)상
이순원	아들과 함께 걷는 길	교학사(남)상
	학	새롬(권)1-2, 유웨이(이)1-2, 지학사(방)1-2, 금성(윤)2-1

	이영일	외갓집은 언제나 부갓집	비상(조)1-2
	이익상	어머니와 달밤	지학사(방)2-1
	이청준	눈길	미래엔(윤)상, 비상(조)상, 지 학사(박)하, 천재(김대)하
		선생님의 밥그릇 이야기 서리꾼	두산(우)1-1 미래엔(이)1-2
	이태준	꽃나무 심어놓고	지학사(박)상
		돌다리 어린 수문장	교학사(남)2-1 미래엔(이)2-2
	이현주	육촌형	해냄(오)1-1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두산(우)하, 비상(조)상, 천재 (김중)하, 천재(박)하
		사냥	천재(박)1-2
	전성태	소를 줍다	지학사(방)1-2
	정호승	녹지 않는 눈사람	유웨이(이)1-2
		항아리	웅진(이)1-1
	주요섭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교학사(남)2-2, 대교(왕)2-2, 미래엔(이)2-1, 미래엔 (윤)2-2, 비상(조)2-1, 좋은책 (이)2-2, 지학사(이)2-2
	채만식	미스터 방	창비(김)2-2
		이상한 선생님	유웨이(이)1-2, 해냄(오)2-2
		태평천하	디딤돌(이)하, 미래엔(윤)하, 좋은책(이)상, 지학사(박)상, 지학사(방)하, 천재(김중)상
	최인훈	광장	천재(김대)하
		상도	유웨이(박)상, 천재(박)상
	최일남	노새 두 마리	미래엔(윤)2-1
	하근찬	수난이대	교학사(김)1-2, 미래엔(윤)1-2, 박영사(송)1-2, 좋은책(이)1-2, 창비(김)1-2, 대교(박)2-1, 지 학사(방)2-2, 지학사(이)2-1, 천재(박)상
	현덕	나비를 잡는 아버지	교학사(남)1-1, 미래엔(윤)1-1, 웅진(이)1-1, 창비(김)1-1
		하늘은 맑건만	미래엔(이)1-1, 지학사

			(방)1-1
	현진건	운수 좋은 날	대교(박)2-2
	황석영	꿈배다리	해냄(오)2-1
		아우를 위하여 지붕 위의 전투	금성(윤)상, 창비(문)상 새롬(권)2-2
	황순원	별	유웨이(박)상
		소나기	교학사(남)1-1, 대교(박)1-1, 디 딤돌(이)1-2, 박영사(송)1-1, 천재(김)1-2, 대교(왕)2-1, 미 래엔(윤)2-1, 좋은책(이)2-1
<b>합계</b>	<b>47명</b>	<b>75 편</b>	
여성 작가	공선옥	일가	천재(노)2-1
	공지영	즐거운 나의 집	더텍스트(김)하
	권정생	강아지 똥	미래엔(이)1-1
		몽실언니	교학사(김)1-2, 천재(김)1-1
	김려령	완득이	창비(문)상
	김소연	명혜	금성(윤)1-2, 천재(노)1-2,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두산(우)하
	김윤희	책도령을 구해주세요	비상(조)1-1
	남미영	소년병과 들국화	교학사(남)1-2
	박경리	토지	해냄(오)1-2, 대교(박)2-1
	박완서	겨울 나들이	좋은책(이)상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디딤돌(이)1-2, 천재(박)1-2, 미래엔(윤)상
		배반의 여름	교학사(남)상
		시인의 꿈	지학사(이)2-1
		옥상 위의 민들레꽃	교학사(남)1-2
		자전거 도둑	대교(박)1-2, 박영사(송)1-1, 유웨이(이)1-1, 좋은책(이)1-1, 천재(김)1-2, 천재(노)1-1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두산(우)하
		외딴 방	창비(문)하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디딤돌(김)2-1
	오승희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	디딤돌(이)1-1
	오정희	소음 공해	미래엔(윤)1-2
	이금희	너도 하늘말나리야	디딤돌(이)1-1
최나미	턱수염	천재(박)1-1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금성(윤)2-1	

합계	17명	24편	
총합계	64명	99편	

표 5 중·고등학교 현대소설 남녀 작가와 작품 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만큼, 이를 반영하듯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하지만 이번 7차 개정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작가의 성비만을 본다면 그러한 요구에 따라 변화된 모습은 크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총 64명의 작가의 작품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그 중에 남성작가는 47명, 여성작가는 17명이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남성작가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따지면 남성작가는 73%, 여성작가는 27%에 그친다. 여성작가와 남성작가의 양적 차이는 3배로 이를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의 성비가 상당히 불균형을 알 수 있다.

이 전의 교과서 성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도 계속 지적되어온 문제점 중 하나가 작가의 성비이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의 작가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여성작가는 손에 꼽을 만한 몇몇의 작품만 수록되어 왔다. 대부분의 작품이 남성작가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모습은 상당 부분 왜곡되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전으로 생각되는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상을 살펴보면, 모성을 강조하며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 또는 남편 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아내 모습 등이 대부분이었다. 교과서의 특성상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서 보여주는 작품과 인물의 모습을 신뢰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즉, 학습자들이 작품을 통해 여성상을 접할 때, 교과서에서 그리는 여성상을 올바른 여성상으로 인식하여 그러한 모습을 내면화 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작가의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품의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작가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총 수록된 작품 수는 99편인데 그 중 남성작가의 작품이 75편이고, 여성작가의 작품이 24편이다. 앞선 작가의 성비처럼 작품의 비율도 남성의 작품이 76%, 여성 작품이 24%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학습자들에게 남성작가의 글이 더 좋고 여성작가의 글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고를 심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과서의 수록된 작품을 접할 때마다 대부분이 남성 작가의 글이고 소수의 몇몇 유명한 여성 작가의 글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다수의 남성 작가의 글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은 그 과정에서 남성 작가의 글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작가와 작품의 성비 불균형에서 오는 큰 차이로 인해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차별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학습한 성역할은 학습자들이 성인이 되면 더욱 강화되며 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인 남녀작가의 성비부터 바로 균등하게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작가의 성별이 양성평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성작가의 수가 여성에 비해 3배정도 많다면 많은 작품에서 남성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긍정적으로 그려질 확률이 높고, 그에 반해 여성의 모습은 남성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전의 성역할 연구에서도 왜곡된 여성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과서집필에 여성전문가의 참여가 더 높아져야 하고, 작품의 수록에 있어서도 여성작가의 작품이 더 많이 수록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것이다.

## 2. 등장인물의 성별 비교

소설은 서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건의 구성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된다.<sup>13)</sup>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그 안에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중심 인물이 있는가 하면, 주변적인 인물이 있기 마련이다. 과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비율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장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주요인물의 성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속 주요인물의 구성이다.

	작가	작품	주요인물	
			남	여
남성 작가	강소천	꿈을 짚는 사진관	나	-
	구효서	이발소 거울	나, 이발사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나, 안, 외판원	-
	김용익	꽃신	나(상도)	-
	김원일	오마니별	현선생, 조평안	줄리
	김유정	동백꽃	나	점순
		만무방	응칠, 응오	-
		봄봄	나	점순
	김은국	잃어버린 이름	나, 아버지	-
	김정현	아버지	한정수(아버지)	아내, 한지원(딸)
	김훈	칼의 노래	이순신	-
	노양근	열세동무	시환, 광철,	옥례

13)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p.222.

		윤걸, 쾌득, 개돌	
박상률	봄바람	나(훈필)	할머니, 할머니 딸
	생일선물	나(훈필)	서울아이
박영준	모범 경작생	성두, 길서	의숙
박태원	영수증	노마, 주인 아저씨, 우동집 주인	-
	천변풍경	창수, 민주사, 종로은방주인	하나꼬, 이쁜이, 금순이, 만돌 어멈 어머니
성석제	약방 할매	나	어머니
	천국에는 사다리가 없다	나, B, C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나	-
심훈	상록수	-	영신
안도현	연어	은빛연어	푸른 연어
염상섭	만세전	나, 아버지, 김천 형님	정자
	삼대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	홍경애
오영수	고무신	옛장수	남이
	후조	민우, 구칠이	-
위기철	아홉 살 인생	나(여민)	어머니
윤대녕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조부, 백부, 아버지, 나	아내
윤문원	시간이 닿을 때까지	주인집 남자, 세든 남자	-
윤후명	하얀 배	나, 소년, 미하일	-
윤홍길	기억 속의 들꽃	나	명선
	빨감	나, 아버지	-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나, 권씨	-

		장마	나	할머니, 외할머니
이광수		무정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 김병욱
이동하		전쟁과 다람쥐	옥	-
이문구		관촌수필	나, 아버지, 할아버지	-
		유자소전	유재필, 총수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나, 엄석대	-
		초한지	유방, 항우	-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나	어머니
		수암	나, 수암	-
이범선		표구된 휴지	나	-
이순원		아들과 함께 걷는 길	나, 아들	-
		학	성삼, 덕재	-
이영일		외갓집은 언제나 부갓집	기영, 기철, 춘식	-
이익상		어머니와 달밤	나	어머니
이청준		눈길	나	어머니, 아내
		선생님의 밥그릇	나, 노진 선생님	-
		이야기 서리꾼	할아버지, 손자	-
이태준		꽃나무 심어놓고	방서방	김씨, 정순, 노파
		돌다리	창섭, 아버지	어머니
		어린 수문장	나	-
이현주		육촌형	장근태, 장성태, 유세아, 홍탱크, 오토바이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허생원, 동이, 조선달	-
		사냥	나	-
전성태		소를 줍다	나(동명), 아버지	-
정호승		녹지 않는 눈사람	눈 형제	-
		항아리	드러나지	없음
주요섭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저씨	나(옥희), 어머니

	채만식	미스터 방	방삼복, 에스 소위, 백주사	-
		이상한 선생님	나, 강선생님, 박선생님	-
		태평천하	윤직원, 윤창식, 윤중수, 윤중학	-
	최인훈	광장	이명준	윤애, 은혜
	최인호	상도	임상옥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나, 아버지	-
	하근찬	수난시대	만도(아버지), 진수(아들)	-
	현덕	나비를 잡는 아버지	바우, 경환, 아버지	-
		하늘은 맑건만	문기, 수단, 작은아버지	숙모
	현진건	운수 좋은 날	김침지	아내
	황석영	꿈배다리	나, 꿈배	꿈배 아내
		아우를 위하여	나(김수남), 이영래, 장판석, 임종하	병아리 선생님
		지붕 위의 전투	나, 고문관	-
	황순원	별	소년	누이
소나기		나	소녀	
<b>합계</b>		<b>144명</b>	<b>46명</b>	
여성 작가	공선옥	일가	나(한희창), 아버지, 나의 당숙	어머니
	공지영	즐거운 나의 집	아빠	나(위녕), 새엄마, 엄마
	권정생	강아지 똥	드러나지	없음
		몽실언니	인민군 청년	몽실
	김려령	완득이	나(도완득), 아버지, 이동주(선생님)	어머니, 정윤하
	김소연	명혜	아버지(송참판)	명혜, 어머니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나(민홍), 창이형	어머니, 국희

	김윤희	책도령을 구해주세요	책도령	어머니
	남미영	소년병과 들국화	남한 병사, 북한 병사	-
	박경리	토지	길상, 한복	서희
박완서		겨울 나들이		나, 여인숙 주인, 여인숙 할머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
		배반의 여름	나, 아버지	-
		시인의 꿈	나, 할아버지	-
		옥상 위의 민들레꽃	나, 젊은 아저씨	어머니, 임시 회장, 뚱뚱한 아줌마
		자전거 도둑	수남, 주인 영감,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나
		외딴 방	-	나, 외사촌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경호 아버지, 김반장, 싱싱청과물 주인	고홍택, 시내 엄마, 지물포 여자, 새댁, 정육점 여자
오승희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	-	나, 어머니, 할머니
오정희		소음 공해	-	나, 위층여자
이금이		너도 하늘말나리야	바우, 아버지	미르, 소희
최나미		턱수염	나(승권), 아버지	-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청둥 오리	잎짝
<b>합계</b>			<b>32명</b>	<b>36명</b>
<b>총합계</b>			<b>178명</b>	<b>82명</b>

표 6 중·고등학교 현대소설의 등장인물 남녀 구성

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남성과 여성인물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작가의 성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의 작가는 대다수가 남성이다. 작가뿐 아니라 작품 내에서도 역시 주요인물 역시 대다수가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이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남성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은 이름이 있지만, 여성인물은 이름 없는 소녀 또는 아이, 어머니나 할머니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주변적 인물에 그치거나 상당히 성역할 고정관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형적인 인물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직업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통틀어 가장 많은 직업은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그 뒤 여성은 전업주부와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구두닦이, 인력거꾼, 군인, 식당 주인,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장 배경에 있어서도 여성인물은 대부분이 실내(가정)에 국한되는 반면 남성인물의 등장 배경은 실외에서 주로 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등장 배경이 가정에 국한되는 것은 여전히 교과서에 여성은 집안일을 주로 도맡아 하는 역할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반면 남성은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역할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

작가의 성비 구성과 더불어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성비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다.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접할 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면 이는 학습자들에게 남성 위주의 사고를 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성비와 작품 속에서 인물의 역할 비중, 등장 배경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작품 속 등장하는 성역할에 대한 문제는 IV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문학교육과 성역할

문학교육의 다양한 목표 중 문학 작품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를 빼놓을 수는 없다. 내면화란 어떤 가치관이 암기된 지식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에 감응해서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기대되는 상태를 말한다.<sup>14)</sup> 즉, 문학교육을 통한 내면화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한 내면화로 도덕의 직접적 설교나 윤리의 교육을 통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감동을 통한 가치 교육의 내면화를 의미하며 이는 문학교육이 가치관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소설 교육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은 복잡한 현실이고, 또 소설 교육의 사회성이란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sup>15)</sup>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문학교육에서 텍스트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남성작가의 작품이고 이들 작품에 드러나는 제도화된 남성지배 양상이 학습자인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남녀차별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학 영역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sup>16)</sup>을 근거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각 학년의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중 본고의 주제와 관련 있는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 앞선 내용체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여

14) 한철우, 『국어교육학원론』, 박이정, 2003. p.304.

15) 강진호, 「소설 교육과 타자의 지평」,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p.34.

16)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교육과학기술부, 2009.를 재구성함.

학년	성취기준 및 내용요소	해설
7학년	<p>【7-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p>	<p>문학 작품은 현실을 토대로 구성되며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b>문학 작품이 현실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어진 시대를 나름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설정하였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드러난 시대 상황 파악하기</li> <li>▪ 작품에서 인물이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파악하기</li> <li>▪ 작품 속에 드러난 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현실 상황 비교하기</li> </ul>	
8학년	<p>【8-문학-(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p>	<p>문학에는 현실의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대개는 인물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b>문학에서 인물의 행동이 사회·문화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그 구체적 관련 양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 하였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의 행동, 사고방식 이해하기</li> <li>▪ 인물의 행동과 사회·문화적 상황 관련짓기</li> <li>▪ 작품과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계 파악하기</li> </ul>	
9학년	<p>【9-문학-(2)】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창작 동기와 의도를 파악한다.</p>	<p>사회·문화적 상황이란 등장인물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이자 대개는 작가가 몸을 담고 있는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b>작품의 창작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은 관련 맺을 수 있다.</b> 작가가 어떤 의도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작품을 창작함을 인식하고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창작 동기를 관련시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이 사회·문화적 상황의 산물임을 이해하기</li> <li>▪ 작가의 창작 동기와 의도 추론하기</li> <li>▪ 작품의 창작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 관련짓기</li> </ul>	
10학년	<p>【10-문학-(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p>	<p>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또 반대로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자신과 주위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b>문학 작품을 둘러싼 개인적 혹은 실존적 상황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양하게 참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문학적 해결 방안 이해하기</li> <li>▪ ○문학을 통한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 성찰하기</li> <li>▪ ○문학 작품의 의미를 인간의</li> </ul>	

표 2 문학 영역 성취기준

성상을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읽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취기준을 근거로 작품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주변적 존재이므로 여성의 자기서사는 남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일은 항상 여성 일반의 존재방식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반면 특정 남성은 자신을 남성 일반과 연관 짓지 않고도 자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 남성은 자신을 한 사람의 독특한 인간으로 이해하거나 인간 일반의 특수한 표현으로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여성은 여성 집단의 일원으로 규정당하는 것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한 사람의 여성은 항상 여성 일반의 대표나 범례나 예외로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일은 필연적으로 당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적 정체성 일반을 문제 삼는 일과 연관 될 수밖에 없다.<sup>17)</sup>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살펴본다면, 여기에는 남편의 축첩으로 인해 버림받고 핍박받는 여인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가부장제에 의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화자에 의해 못생긴 외모, 성격적 결함을 가진 인물들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학습들로 하여금 그들의 처지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한다. 더구나 고부간의 갈등을 과장하여 희화화하여 여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축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7)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p.225.

「태평천하」 같이 문학사적으로 인정받은 남성작가 작품의 대부분은 서사적 관점이 항상 남성적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문학 작품을 배울 때 작품에 나타난 지배적인 가치나 가정에 학습자가 동의하고 수긍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을 통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학습자들은 자연히 이러한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습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작가의 소설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과 가부장제 모순 속에서 고통 받는 여성의 삶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박완서의 「나무」에서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고,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에는 여성의 삶에 대한 비극적 전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부절제한 남성의 가부장적인 폭력을 고발하고 있으며, 박경리의 「토지」 생명력이 넘치는 당당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숙의 「외딴방」에서는 근대화 물결 속에서 자아발전의 길을 걸었던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여성학습자에게는 성적 열등감을 씻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게 하고 건강한 여성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남성학습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학교육에서 페미니즘 문학 비평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저항하는 독자’가 될 수 있고 언어나 이미지들이 함축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로 작품을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sup>18)</sup>

남성작가들의 작품과는 달리 여성작가들의 글 속에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

18) 램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p. 59.

넘치는 여성상이 나타나거나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을 통해 긍정적인 여성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갖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이야기는 여학생들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sup>19)</sup>

또한 문학텍스트를 통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있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여성의 자질이나 경험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정치적 요구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의 여성작가들의 작품 중에 문학적 가치가 있는데도 남성 비평가에 의해 묻혀버린 작품은 없는지, 또는 평가 절하된 작품은 없는지 여성 주의적 시각으로 발굴해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문학작품을 읽는 방식에서 벗어나 남성들의 작품을 여성적 읽기로 읽어내는 페미니즘 비평을 도입해 남성의 관점이 인간 보편적인 관점으로 인식되는 현재와 같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읽기 과정을 통해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양성평등적인 가치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19) 램 모리스, 앞의 책, p.106.

#### IV. 현대소설에 나타난 성역할의 유형

분석 대상을 현대문학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도 사회구성원의 일부이며 그것을 감상하는 독자 또한 사회구성원이다. 작가이든 독자인든 사회에 속해서 삶을 꾸려가고 있기에 문학에는 당연히 우리 삶의 모습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 속의 삶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고,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비친 우리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차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각각의 작품에 드러난 여성의 모습을 통해 적용할 점을 간단히 제시할 것이다. 교과서에 드러난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는 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 1. 고정적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

###### 1) 현모양처, 모성 이데올로기의 여성상

가. 「사랑손님과 어머니」 - 주요섭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총 7종의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작품에서 어머니와 아저씨가 호

감을 느끼지만, 결국 어머니가 아저씨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 고민하는 부분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은 전통적으로 요구되던 여성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서사는 어머니와 아저씨와 감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시종일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저씨에 대한 호감이 있지만 아저씨와 철저히 내외를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디 좀 볼일이 있는 날은 으레 끼니때에 안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툭툭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찌겠니? 너밖에 사랑에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누님이 좀 들고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을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홍홍”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sup>20)</sup>

위의 인용문에서 어머니는 열(烈)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은 남녀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신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남존여비라는 중세적 가치관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또한 충과 효가 남녀 모두에게 부여되는 덕목이라면 열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되는 것이다. <sup>21)</sup>

이 당시 -1930년대- 여성들에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 여성들은 황민화교육의 피해자로 민족적, 성적 차별에 대한 불이익과 현모양처 양성의 기예중심 교육내용을 주로 받았다. <sup>22)</sup> 근대

20)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 2-2, 교학사, 2011. p.31.

21) 장순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국어교과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4. p. 56.

22) 임윤정, 「근대여성사적 측면에서 본 단발의 사회적 인식 변화: 개화기에서 1930년대까지」,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17.

식 학교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도 현모양처의 역할이 강요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조선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가부장제 아래서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는 남성중심가치관에 의해 억압받으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여성의 위치는 남편의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보조자에 불과했고 인고의 미덕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었다.

작품 속의 어머니는 열의 미덕을 고수해야하는 현모양처의 역할과 한 여성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인용문에서는 어머니가 아저씨와 관계를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을 알 수 있다.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것처럼 성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다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낼 바에는 내게 내는 것보다 아저씨에게 내는 것이 내게는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참 있더니 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옥희야, 너 이 꽃 이야기 아무보구도 하지 마라, 응?”

하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닥까닥했습니다.<sup>23)</sup>

서술자의 시점이 어린아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작품에서 나는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실 부끄러움, 아저씨에 대한 호감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성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아저씨가 준 꽃이라는 것을 아무

---

23) 남미영 외, 앞의 책, p.38~39.

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습에서 어머니는 아저씨와의 관계를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쉽사리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앞서 언급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강력히 작용하기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한번 결혼을 했었기에 자신이 남편이외의 남자에게 이러한 호감을 갖는 것조차 옳지 못하다고 여긴 것이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그래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그때에 어머니는 내가 팔 흔들는 것을 깨닫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끌어당기더군요. 나는 어머니 귀에 입을 대고, “저기 아저씨도 왔어.” 하고 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하면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 잡아다가 앞에 앉히고 고개를 누르더군요. 보니까 어머니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더군요.<sup>24)</sup>

위의 인용 부분은 어머니가 옥희를 데리고 예배당에 간다는 것을 알고 아저씨도 예배당에 따라 온 부분이다. 따라온 아저씨를 발견하고 옥희가 어머니께 알리자 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고개도 들지 못한다. 어머니가 옥희를 데리고 예배당에 간 것은 어머니가 보일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의 새하얀 두 뺨 위로 쉼 새 없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나도 갑자기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하고 나도 훌쩍거리며 물었습니다.

“옥희야.”

“응?”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

24) 남미영 외, 앞의 책, p.37.

“옥희야, 너 하나면 그뿐이다.”

“엄마.”

어머니는 다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sup>25)</sup>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어머니를 현모양처의 여성상으로 분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인용문 부분 때문이다.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어머니는 아저씨와 내외하러 애쓰기도 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그 마음을 표현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머니에게 작용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한다.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된 이후 자신의 삶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뒤에서 살펴 볼 「상록수」에서도 고민하는 여성인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상록수」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주체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였는데 이 작품의 어머니가 하는 고민은 영신의 고민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두 인물 모두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고민을 하게 되지만, 영신이 받은 압력은 비단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보다는 그 시대를 사는 일제강점하의 우리 민족이라면 겪는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그 당시 여성으로 계몽활동을 하며 압력을 받았을 때 그 압력에 바로 굴하기 보다는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태도에서 적극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고 영신에게 있어서 큰 선택의 폭이 없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어머니가 하는 고민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행해진 압력이긴 하였지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고민이었다. 그렇기에 어머니 또한 고민을 하며 결국 그 압력에 굴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내포한 의미는 매우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25) 남미영 외, 앞의 책, p.41.

지금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우리 삶의 곳곳에 남아 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을 활용할 때, 어머니의 모습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능동적인 여성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

#### 나.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고등학교 교과서 1종에 수록되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엄마가 사라진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엄마의 빈자리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다. 다음은 큰딸이 어머니의 빈자리에서 오는 엄마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부분이다.

나는 엄마에게 좋은 딸이었나? 나는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내게 해준 것처럼 할 수 있나. 한 가지는 알아. 나는 엄마같이 못해. 할 수도 없어. 나는 내 아이들 밥 먹이면서도 자주 자주 귀찮아. 아이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같이 느껴져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진짜 내가 낳았나 싶어 감격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인생을 통째로 아이들에게 내맡길 순 없어. (중략) 그런데 우리까지도 어떻게 엄마를 처음부터 엄마인 사람으로 여기며 지냈을까. 내가 엄마로 살면서도 이렇게 내 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나의 어린 시절을, 나의 소녀 시절을, 나의 처녀 시절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왜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까.<sup>26)</sup>

큰딸의 회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작품 속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성고정관념의 어머니 모습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작중 화자인 ‘나’가 어머니가 된 이후 아이들에 느끼는 감정이 때때로 부담이거나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낳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그런 내색 없이 ‘나’와 자식들을 키운 것이다.

26) 우한용 외, 『고등학교 국어』 하, 두산출판사, 2011. pp.120~121.

기성의 어머니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의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부장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이익이 남성의 이익에 종속되어 온 권력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구조에서 여성들은 남성 위주로 정의된 여성의 성질, 여성의 사회적 역할 등 여성성에 대한 내면화된 규범을 획득, 체화하게 된다. 규범으로서의 여성성이란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여성은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모성의 과업을 여성의 일차적이고 우선적인 과업으로 설정하게 된다. 결혼한 여성은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 자녀가 성인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떠맡는 것이 남녀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 수행에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sup>27)</sup>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생기고 육아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부터는 인용문의 어머니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의문의 제기하거나 불만을 갖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자아 발전이나 성취 보다는 자식에게 모든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함을 사회가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한 개인의 여성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처음부터 엄마였던 것처럼 엄마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 역시도 앞서 모성의 이데올로기에서 강요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이다. 모성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머니는 ‘희생과 사랑의 모티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이미지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모든 여성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sup>28)</sup>

---

27) 조선아, 「돌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모성: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13.

28) 조선아, 앞의 논문, p.6.

이 작품을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육아의 역할 수행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여, 사회  
전체가 여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 되기’,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강  
요하는 것에 대하여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 2)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남성상

가. 「아버지」 - 김정현

김정현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과서 1종에 수록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일을 했지만 결국은 가족과 멀어지고 만 아  
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아버지, 당신이 매일 저녁 술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에 대한 불만이신가요?  
그렇다면 엄마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여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에  
대한 불만이신가요? (중략)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당신은 차라리 남이었습니다. 유치원 입  
학식 사진에도, 졸업식 사진에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 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또 졸  
업식, 끝내는 고등학교까지. 그 많은 사진 어느 구석에도 당신의 얼굴을 엿었습니다. 유일하  
게 당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저의 대학교 입학식 사진뿐입니다. 그런데 전 그 사진 속 당신  
의 얼굴에서 고마움보다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것이 당신이 못 이룬 꿈에 대한 한풀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sup>29)</sup>

위의 인용문은 딸 지원이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의 일부이다. 일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지원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함을 알 수 있다.  
인용문의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대학교 입학 사진에서 자신이 못 이룬 꿈에  
대한 한풀이에 대한 서글픔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29) 윤희원 외, 『고등학교 국어』 하, 금성출판사, 2011. p.140.

아버지 정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음을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그해 내내 35번째 안으로 출근했고, 심지어는 1번부터 35번까지의 버스가 아닌 36번 이후의 버스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타거나 동료들의 승용차에 편승을 할 때도 번호판의 끝 두 자리가 35내의 숫자가 아니면 절대 타지 않았다. 35, 그 꿈을 지키기 위해 그는 그해 내내 35의 강박에 시달렸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고, 그것을 지켜내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복했다.

그리고 정수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관악 캠퍼스를 찾았다. 해가 질 때까지 이듬해에 이곳을 걷게 될 지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고, 정문을 나설 때는 그 캠퍼스를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다.<sup>30)</sup>

그날, 평생 처음으로 사 들고 간 빨간 장미꽃다발이 왜 그렇게 쑥스럽고 부끄러웠는지, 때늦은 꽃샘추위에도 그는 진땀을 흘렸다. 그래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sup>31)</sup>

앞선 지원의 편지와는 달리 정수의 딸의 합격에 정수는 매우 기뻐했고, 꽃다발을 사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왜 지원은 정수의 마음과는 정 반대로 받아들여지게 됐을까? 이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근엄하고 무뎠으며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식되어 왔다. 더모트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일만 하는’, ‘늦게 들어오는’, ‘소파에서 주무시는 아버지로 묘사된다고 하였고, 황정해·이정덕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칭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와 감정을 형성하는데도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sup>32)</sup> 하지만 그 마음은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 어떤

---

30) 윤희원 외, 앞의 책, p.144.

31) 윤희원 외, 앞의 책, p.145.

32) 조윤경,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돌봄의 의미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성인지

어려움에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 이 작품 속의 정수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정수에게 돌아오는 결과란 딸의 원망어린 편지일 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바로 전통적인 아버지들의 표현방식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남자는 ~해야돼’라는 사고방식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이는 모습은 남자는 여자들처럼 속내를 표현하기 보다는 속내를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을 성역할 습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세대의 아버지들은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아버지들의 돌봄 참여가 강조되고 이는 상황에서 기성의 아버지들은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없다.<sup>33)</sup>

이런 고정관념을 잘 표현해주는 말로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운다.”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다. 극도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남자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고정관념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성고정관념을 다시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 작품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 지금이 시대의 대다수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은 성고정관념에 갇힌 아버지의 모습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는 저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질 위험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을 통해 학습자들이 성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이 점에 유의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 나. 「고무신」 - 오영수

오영수의 「고무신」은 중학교 국어 1종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

관점에서 본 남성 돌봄과 아버지됨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p.127.

33) 조윤경, 앞의 논문, pp.127~128.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데, 원제는 「남자와 옛장수」였는데,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고무신」으로 제목을 바꾸었다.

그러고는 담배를 짹짹 소리를 내어 빨고 나서,

“내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저 남이 말입더, 저것을 내산 동안에 짹을 맞차 봐야 안되겠는교?”

하고는 또 담배를 빨기 시작한다.

철수는,

“그야 짹을 맞출 때가 되면 그래야죠.”

한즉,

“아니올시다, 지집애가 나이 열여덟이면 과년했거던요.”

“.....”

“우리 동네 말입더, 나이 올해 스무 살 먹은 암전한 신랑이 있는데, 모자 단둥이고요, 뱃일이고 바닷일이고 입 댈 것 없지요.”

철수는 듣다못해,

“그래서 영감은 거기다 남이를 시집보내겠단 말씀이죠?”

“암요.”

그러자 철수 아내가,

“보이소, 나도 스물한 살 때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뭇이 그리 급해서..... 더구나 남이는 나이만 열여덟이지 원래 좀된 편이라 숙성한 애들의 열대여섯 밖에는 안 봐는데.”<sup>34)</sup>

위의 인용한 부분은 철수네 집에서 일하던 남이를 데려가러 온 아버지와 철수부부 사이의 대화이다. 남이 아버지는 남이의 나이가 열여덟이 되기 전에 시집을 보내려 하는데 남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이의 혼처자리도 이미 알아둔 상태이다. 정작 결혼을 하게 되는 당사자는 남이인데 남이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이를 통해서 남이의 아버지가 딸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딸은 자

---

34) 오영수 외, 『중학교 국어』 2-1, 해냄, 2011. pp.32~34.

신의 소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철수부부의 만류에도 남이를 굳이 시집보내려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딸을 시집보내어 자신에게 주워진 임무, 책임을 다하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 역시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는 삼종지도라 하여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함을 강요하였는데, 남이의 아버지 역시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을 때에는 남이를 책임져줄 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이는 여성을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 생각한 반면에 남성은 이러한 여성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남이 아버지가 보이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함을 가르치고, 여성이 절대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가 아님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다양한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

### 1) 주체적인 여성상 - 「명혜」

김소연의 「명혜」는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로 새로 수록된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2종에 수록되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명혜가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과 만나고, 유학길에 오르기로 결심하는 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의 모습은 명혜와 명혜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당시 여성들은 한 주체로서 자아실현을

이루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명혜처럼 ‘의사가 되겠다.’처럼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란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적었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배우는 내용은 결국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집안에서 정한 혼처로 시집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작품 속의 명혜는 의사를 꿈꾸고 있다. 작품에서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때 명혜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다.

명혜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대꾸할 말을 찾는데, 안씨 부인이 오랜 결심을 털어놓듯 말했다.

“유학이 정 하고 싶다면 하거라. 아무리 집안이 기울었다 한들 너 하나 공부 못 시키겠니?”

“예?”

명혜가 별떡 일어나 앉았다. 안씨 부인도 일어나 마주 앉았다.

“일본이든 어디든 너 의사 만들어 주는 곳으로 떠나란 말이다.”

안씨 부인의 얼굴은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예요, 어머니. 저 그냥 집에 있을래요.”

안씨 부인이 무슨 소리냐며 다가앉았다. 명혜는 하루 종일 고심했던 말을 털어놓았다.

“꼭 아버님께서 반대하셔서가 아니라, 집안 형편이 이런데 제 욕심만 채우겠다고 훌쩍 떠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명선이 시집가면 남는 자식도 없고, 저라도 두 분 보살펴 드릴래요. 오빠만큼이야 못하겠지만 저도 자식인데…….”

그 소리에 안씨 부인이 두 손을 휘저었다.

“아니야, 내 너는 꼭 의사 공부 시키고 말게다.”

“어머니.”<sup>35)</sup>

---

35) 윤희원 외, 앞의 책, p.159.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여성은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남성들은 억압되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여성은 소외와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억압받는 것에 대한 더 정확한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억압받는 여성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명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시대상을 생각할 때 여성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결심이었을 것이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떠나서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에 나타난 명혜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아발견과 사회진출에 대한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직업을 분류할 때 남성의 직업은 ‘교사, 경찰, 의사’등과 같이 분류하지만 여자의 직업에 있어서는 ‘여교사, 여경찰, 여의사’등과 같이 앞에 여자임을 드러내며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류 자체가 남성위주의 분류이며 여성의 진입이 매우 적은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아정체성과 성역할을 확립해가는 시기에 양성평등한 인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로 모색에 있어서도 생물학적 성에 의한 차별이나 편견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 참여적 여성상 - 「상록수」

심훈의 「상록수」는 중학교 국어교과서 2종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의

수록 횃수는 많지 않지만 작품에서 보여주는 여주인공의 모습에서 사회 참여적인 여성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배경은 1930년대로 일제는 군국주의적 색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거점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맹 퇴치와 문자 보급 운동인 브나로드 운동이 크게 일어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으로 농촌 봉사에 앞장섰던 박동혁과 청석골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채영신의 사랑이야기와 농촌 계몽을 주제로 하고 있다.

교과서 수록 부분은 전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농촌 계몽가 영신의 봉사와 열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이다. 일제의 탄압 때문에 강습소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대한 영신의 고민하는 모습과, 쫓겨난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감동적인 수업 장면이 그려진다. 다음은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 중 영신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는 아픈 다리를 간신히 끌고 돌아와서 저녁도 안 먹고, 그날 밤을 꼬박이 새우다시피 하였다.

‘참자! 이보다 더한 것도 참아 왔는데, 이만한 일이야 참지 못하랴.’ 하면서도 좀 더 시원하게 들이대지를 못하고 온 것이 종시 분하였다. 그러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떠들었다가는 제한받는 수효의 아이들마저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꿀꺽 참았던 것이다. 아무튼 어길 수 없는 명령이때, 내일부터 일백 삼십여 명 중에서 팔십 명만 남기고 오십 명은 쫓아내야 한다.

‘난 못 하겠다! 차라리 예배당 문에 못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차마 그 노릇은 못 하겠다!’ 하고 영신은 부르짖으며 방바닥에 가 쓰러져 버렸다. 한참 동안이나 엎치락 뒤치락하며 홀로 고민을 하였다.<sup>36)</sup>

이 부분은 영신은 주재소 주임에게서 강습소의 학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

36)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 1-2, 교학사, p.129.

강습소를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진 부분이다. 이러한 영신의 모습에 대해 다른 연구에서는 영신이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소극적 모습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영신이 주재소 주임의 말대로 금을 그어 아이들을 쫓아내는 행동을 취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영신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신이 정말 소극적인 여성이었다면 이런 명령에 고민 없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영신은 고민하고 있고, 아이들을 내쫓게 되는 상황에서 매우 가슴 아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부터가 영신이 하는 계몽활동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영신은 창문을 말끔히 열어젖혔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창 앞턱에다가 버티어 놓고 아래와 같이 커다랗게 썼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장에 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목구멍이 찢어져라고 그 독본의 구절을 바라다보고 읽는다. 바락바락 지르는 그 소리는 글을 외는 것이 아니라 어찌 들으면 누구에게 발악을 하는 것 같다.<sup>37)</sup>

비록 주재소의 명령 때문에 강습소에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영신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영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해나갔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채영신<sup>38)</sup>은 일제의 탄압에 괴로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

---

37) 남미영 외, 앞의 책, p.136.

38) 조남현, 「상록수 연구」, 『서울대 인문논총』 35권, 서울대학교, 1996. p.26. 에 따르면 주인공

이 따르는 유약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국어 교과서의 작품의 작중 인물 중 여성 인물 중에서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작품 전체의 인물 구성을 보게 되면 순사와 주재소 주임, 장로, 전도사 등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남성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제와 연관 지어 볼 때도 계몽이라는 주제로 인물의 활동상을 그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인물을 주인공을 돕는 부수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여타의 계몽소설의 주인공을 생각해보면 대다수가 남성으로 그려지고, 여성은 도움을 주는 주변적 인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주변적 인물로 머물러 있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접하는 계몽 소설의 대부분은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많을 것이다. 그 과정에 학습자는 남성의 역할을 앞장서서 가르치고 깨우치는 역할로 인식하여 더 우월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 주인공인 채영신을 통해 그러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내면 성찰의 여성상 - 「외딴 방」

신경숙의 「외딴 방」은 고등학교 교과서 1종에 수록되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성장기를 보내야 했던 소녀의 내밀한 정신적 발전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 아울러 그 성장기 때 갖게 된 상처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를 현재 시점에서 주인공이 극복하여 나가는 과정도 함께 제시하고 있

---

채영신은 시인 노천명이 「샘골의 天使 崔容信 孃의 平生」에서 밝힌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은 모델이다. 최용신은 1935년 1월 23일에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경성여자 기독교 청년연합회의 과건을 받아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천곡리(샘골)에서 헌신적으로 농촌운동을 하였다.

다.<sup>39)</sup>

교과서에는 열여섯의 ‘나’가 창과의 추억에 대해 회상하는 부분과 나이를 속이고 공장에 취직해 외사촌과 함께 공장일하는 여공으로의 삶을 사는 부분이다. 작품의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1970년대 근대화로 인한 이농 현상과 도시민들이 하층민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시대이다. 작품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작품에 수록되기 이전의 부분에서 ‘나’는 큰오빠와 외사촌과 함께 서울에서 도시 생활을 하며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숙련공이 되어 갈수록 외사촌과 나의 이름은 없어진다. 나는 스테레오과 에이 라인의 1번이고 외사촌은 2번으로 불린다. 작업반장은 외친다.

“1번, 2번 뭐 하는 거야? 작업이 끊기잖아.”

1번으로 불리지 않아도 내 이름은 없다.<sup>40)</sup>

큰오빠는 어떻게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열여덟의 이연미라는 이름의 서류를 만들어 와 내게 주었고 회사에서의 나는 1번으로 불리지 않아도 이연미인 것이다. 이연미 씨! 누가 나를 그렇게 부르면 나는 나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 외사촌이 옆구리를 푹푹 찢어야 그때야 으응, 하며 고개를 든다.<sup>41)</sup>

인용된 부분은 통해서보면 이 당시 ‘나’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주체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나’가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관리 사원은 받지 않는 몸수색을 남자 경비원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과 성적 유린에 분개한 여공들이 알몸 시위를 하는 사건, 여성 노동자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던 사건을 묘사하고

39) 유정희, 「1990년대 여성 성장 소설 연구: 은희경 『새의 선물』과 신경숙 『외딴 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7. p.62.

40) 문영진 외, 『고등학교 국어』 하, 창비, 2011. p.23.

41) 문영진 외, 앞의 책, p.24.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노동소설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낸 성장소설로 보고 적극적인 여성인물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가 공장에서 겪은 사건은 당시 공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한다기보다 ‘나’가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국토 안에서, 나의 집에서 내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한다. 비행기를 타 버린다. 그러나 결국 밤바다에 떠 있는 어선의 불빛을 보며 이렇게 앉아 있다. 그리고선 이 글은 사실도 픽션도 아닌 그 중간쯤의 글이 될 것 같은 예감이다. 하지만 그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글쓰기를 생각해본다. 내게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고 쓰고 있다. 나는 과연 열여섯의 시작을 오랫동안 담아 놓아 버렸던 그 폐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더구나 문장이 찾아오면 어디서나 집으로 돌아가던 습관에서 벗어나 문장을 외면하고 이렇게 도망쳐 온 여기에서 말이다.<sup>42)</sup>

이후, 육 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이 되었고, 그동안에도 나는 그 때의 이야기가 문장으로 튀어나오려 하면 심호흡을 하며 밀어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냈으니까, 어떻게 그녀들이 이끌어 내진다 해도, 나는 그 속의 어디에 서 있어야 할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한번 자신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어지는 것이다.<sup>43)</sup>

이 작품에서 ‘나’에게 글쓰기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나’가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외딴 방에 밀어넣었던 상처도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계속 글쓰기에 대해서 ‘나’는 걱정하고 계속 도망가고 싶은 힘겨움 때문에 글쓰기의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딴 방 시절의 ‘나’에게 글쓰기가 암담하고 힘든 삶을 인내하고 살어나

---

42) 문영진 외, 앞의 책, pp.25~26.

43) 문영진 외, 앞의 책, p.30.

가기 위한 수단 의 의미를 갖는다면 외판 방 이 후의 시절에 글쓰기의 의미 는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성을 오래 생각해 본다. 너무 속도가 빨라 노래 하나도 따라 부르기 힘든 지금, 내가 붙들 현재란 무엇인가, 하고 나는 지나가고 싶지만 과연 무엇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미래 소설이나 가상 소설이라고 처음부터 작정을 해둔 게 아니면 글쓰기는 결국 뒤돌아보기가 아닌가. 적어도 문학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기억들은 성찰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속에 흐르는 어제 캐내기 아닌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얼 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은 또 어제가 되어 내일 흐를 것이다. 문학이 언제나 흐를 수 있는 것은 그래서가 아닌가, 정리는 역사가 하고 정의는 사회가 내린다. 정리할수록 그 단정함 속에 진실은 감춰진다. 대부분의 진실은 정의된 것 이면에 살고 있겠지. 문학은 정리와 정의 그 뒤쪽에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 속에. 뒤쪽의 약한 자, 머뭇거리는 자들을 위해, 정리되고 정의된 것을 형클어서 새로운 흐르게 하기가 문학인지도 모른다, 고 생각해 본다. 다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말이다. 결국 이것도 일종의 정리인 셈인가. 지금, 나, 내가 말한 뒤쪽을 봐야 하는가.<sup>44)</sup>

인용된 부분을 통해서 ‘나’가 과거의 삶은 여전히 현재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임을 깨달은 것을 보여준다. 즉, 글쓰기란 뒤돌아보기를 통한 성찰의 작업이며 주변부의 소외된 모습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작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아픈 과거와 정면으로 맞설 때 작가가 느끼는 고통과 심리적 갈등을 글쓰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연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와 그것을 대하는 자아의 심리적 갈등을 행위나 언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연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갈등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프로이드의 지적에 의해 뒷받침된다.<sup>45)</sup>

---

44) 문영진 외, 앞의 책, p.31.

45) 송선민, 「『외판방』과 『새의 선물』의 비교 연구 : 여성 성장소설의 측면에서」, 충남대 교육

1980년대 이후 문학계에서 여성의 경험을 말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표현되는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를 바탕으로 체험하게 되는 특수한 경험이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며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이 작품 속에서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글쓰기란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의 글쓰기를 학습자에게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동행과 소통의 남성상

가. 「아들과 함께 걷는 길」 - 이순원

이순원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은 고등학교 교과서 1종에 수록된 작품이다. 작중 화자인 ‘나’가 아들과 함께 대관령 고개를 걸어 내려가며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김정현의 「아버지」와 대조되기에 긍정적인 남성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인용문은 ‘나’가 아들과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다.

“그런데 노을을 보면서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집 앞에서 노을을 바라보던 생각.”

“어떤 생각들요?”

“어릴 때 아빠는 노을이 지면 가만히 쪼그려 앉아 그걸 바라보는걸 참 좋아했단다. 동구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이쪽 대관령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고, 그러면 멀리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노을이 밀려드는 거야. 조금 전 우리도 봤지만 붉게 산 너머로 노을이 밀려오면 하늘은 하늘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붉게 타오르는 바다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가만히 쪼그려 앉아 해는 왜 동쪽 바다에서 떠서 서쪽 산으로 지나 그런 각도

---

대학원, 2007. p.33.

하고, 해가 질 때 노을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지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저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서 왔을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sup>46)</sup>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들의 물음에 아버지는 상당히 상세히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가 아들이 나이쫘에 들었던 생각, 느낌을 상세히 대답해주며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김정현의 「아버지」와 이런 부분에서 대조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서는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아 결국 가족과 멀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오늘 이 길이 참 좋았어요. 저 꼭대기에서부터 제가 아빠하고 걸어왔다는 게…….”

“아빠도 그렇다. 네가 아빠하고 함께 걸을 수 있을 만큼 큰 것도 대견하고.”

“이제 제가 힘들 때 이 길을 생각할 거예요.”

“아빠도 그랬어, 아빠가 힘들 때.”<sup>47)</sup>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대화화면 걸었던 이 길이 아주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표현을 해주고 있다. 「아버지」에서도 이 작품의 ‘나’처럼 지원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성의 아버지들은 오늘날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

46) 남미영 외, 『고등학교 국어』 상, 교학사, 2011. pp.21~22.

47) 남미영 외, 앞의 책, p.36.

는 부정적 역할 모델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의 경험은 오늘날 아버지들이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감정적으로 친밀한, 자녀들에게 잘 반응하는 다정한 아버지라 진술한다.<sup>48)</sup>

지금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성상 또는 아버지상은 표현할 줄 아는 모습일 것이다. 말 하지 않고 근엄하게 뒤에서 지켜보는 또는 위에서 군림하려 하는 모습보다는 친구처럼 다가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다. 존슨(Spencer Johnson, 2001)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감정을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독려했다. 가트만(John M. Gattman, 1997)은 남성들이 아이들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정해야한다고 충고했다. 남성문화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자녀 돌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수용하는 경험을 하면서 무감정성으로 대표되는 남성성에서 탈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즉, 남성들은 돌봄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감정 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sup>49)</sup>

지금까지는 친구처럼 다가가는 역할을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생각되었지만 이 역시 성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탈피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내용 또한 학습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수난이대」 - 하근찬

---

48) 조윤경, 앞의 논문, p.128.

49) 조윤경, 앞의 논문, pp.131~132.

하근찬의 「수난이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틀어 총 9종에 수록된 작품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에 수록된 작품이 많지 않은데 이 작품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모두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한 의의를 지닌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만도와 진수 부자(父子)는 모두 전쟁이 남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인물들이다. 부자가 모두 전쟁에 참전하여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는 상처를 안게 된다. 아버지 만도는 대동아 전쟁때 일제의 징용으로 끌려가 팔을 잃고, 아들 진수는 6·25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불구자의 모습으로 귀향한다.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 아무개는 죽었다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쩔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재를 단숨에 놀라쳐고 말았다.<sup>50)</sup>

아버지 만도는 전쟁에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누구는 전쟁에 나가 죽고 누구는 소식도 없지만 아들 진수는 살아온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마중을 나가고 있다. 만도는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가 조금 다쳤을 뿐 자신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만도의 앞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

---

50) 김상욱 외, 『중학교 국어』 1-2, 창작과비평, 2011. p.143.

가. (중략)

“진수야.”

“예.”

“니 우짜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심니꼬.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심더.”

“수류탄 쪼가리에?”

“예.”

“.....”

“얼럿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 뱀에 군의관이 잘라 버림피더. 병원에서예.”<sup>51)</sup>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진수의 수난은 아버지 만도가 수난을 당했던 일제 말엽의 태평양전쟁으로부터 6·25전쟁까지 이대에 걸친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수난의 모습이 아니라 일제 말엽에서부터 6·25전쟁까지의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불구로 만든 전쟁에 대해 어떤 항변이나 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현실에 순응한다. 여기서 훼손된 팔과 다리는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며 생존문제와 활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52)</sup>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고 가서 슬그머니 엮었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짙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팔로 아버지의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sup>53)</sup>

---

51) 김상욱 외, 앞의 책, pp.150~154.

52) 유문식, 「하근찬 소설 연구: 수난 양상 및 극복 방법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2003. p. 19.

53) 김상욱 외, 앞의 책, pp.156~157.

앞서 언급한대로 팔과 다리를 생산성과 활동성의 상징으로 본다면 부자는 전쟁으로 생산성과 활동성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이다. 또는 전쟁이 남긴 상처로 인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한 개인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작품 마지막 장면의 만도가 진수가 업는 장면을 상처 극복의 의지로 보는 관점이 많다. 그 관점에 부성(父性)을 대입한다면 만도의 행위는 아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가려는 피 끓는 부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는 학습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남은 전쟁의 상처와 그 극복의지 뿐 아니라 만도의 부성도 함께 읽어낼 수 있도록 작품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신념 표현의 남성상 - 「상도」

최인호의 「상도」는 고등학교 교과서 2종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장편소설로 교과서에는 임상옥이 최상품의 인삼을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자 중국 상인들이 임상옥의 인삼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인다. 그러자 임상옥은 인삼 값을 더 올리고 중국 상인들은 임상옥의 동태를 살피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다.

임상옥이 평소보다 인삼을 내놓은 탓에 중국 상인들은 인삼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지만 임상옥은 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 임상옥을 제외한 상단 사람들만 애를 태울 뿐 전혀 신경도 안 쓸뿐더러 오히려 예상 밖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통해서 임상옥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

“여봐라.”

박종일의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상옥이 말하였다.

“인삼을 모두 마당에 쌓아 놓도록 하라.”

박종일이 묵고 있던 회동관 뜨락에 5천 근이나 되는 인삼이 가지런히 포개어져 쌓였다. 그리고 나서 임상옥이 다시 명령하였다.

“장작더미를 마당 한 곁에 쌓아 놓도록 하여라.”

(중략)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그제서야 박종일은 임상옥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박종일은 임상옥의 눈치를 살폈지만 워낙 단호한 결단의 얼굴이라 뭐라고 말을 붙이거나 참견할 수가 없었다.<sup>54)</sup>

그들은 임상옥이 회동관 앞마당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 인삼꾸러미를 집어 던져 태우기 시작하자 혼비백산하였다. 그들은 달려가 자신들의 주인인 약재상들에게 이를 낱낱이 고하였다. (중략)

여행 도중에 도적을 만나면 인삼이라고 하고 도라지를 대신 빼앗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약재상들은 임상옥이 인삼을 태우는 척하고 실은 도라지를 태우는 것이 아닐까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은 분명히 인삼이었다. 인삼 중에서도 수년간 볼 수 없었던 정품 홍삼이었던 것이다.<sup>55)</sup>

임상옥이 가져간 인삼을 정품 홍삼이었고 그것을 태우는 것은 임상옥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인삼 장사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당장은 큰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국어교과서 수록된 많은 작품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의 행태를 비판하는 작품이 많다. 명예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을 저버리고 눈앞의 작은 이익을 따라가는 인물들에 비한다

---

54) 박호영 외, 『고등학교 국어』 상, 유웨이, 2011. p.219.

55) 박호영 외, 앞의 책, pp.221~222.

면 임상옥의 소신있는 행동은 학습자들에게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작품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도한다면 대학입시라는 무한경쟁체제에 놓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확고한 목표의식과 철학을 갖고 나아가도록 지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문학 교육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정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문학 교육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학습자들에게 성에 따른 불평등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Ⅲ장에서는 교과서 수록 작품의 작가의 성별 구성과 그에 따른 작품 비율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살펴본 양적 결과만 본다면 여전히 성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틀어 교과서 작가는 64명인데 그 중에 남성작가가 47명, 여성작가는 17명에 그쳤다. 이미 작가에서 양적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 수록되는 작품의 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후 교과서가 개정된다면 작가 구성에 있어서 남녀의 성별 구성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살펴본 작품 속 주요인물의 성별 구성에서도 역시 성적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남성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의 주요인물은 대다수가 남성인물이었으며,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대부분이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에서는 남성작가의 작품에 비하면 균등하게 성별 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총 8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그 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4작품 「사랑 손님과 어머니」, 「엄마를 부탁해」, 「아버지」, 「고무신」에서는 고정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현모양처의 미덕과 모성을 강조하는 작품과 전위적 가부장제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4작품에서 보이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학습자들에게 또 다시 성역할 고정화를 하게 만드는 모습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아버지 역시 가족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는 무뎉뎉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의 6작품은 다양한 성역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명혜」, 「상록수」, 「외딴 방」,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수난이대」, 「상도」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성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명혜」, 「상록수」, 「외딴 방」은 자아실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여성상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여성,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사회 참여적 여성 그리고 자아성찰을 하는 내면적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각기 다른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고 긍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수난이대」, 「상도」를 통해서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앞의 두 작품은 동행하고 소통하는 부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상도」를 통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인물의 모습에서 학습자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 작가와 작품의 발굴이 시급하다. 교과서 작가 및 작품의 양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여성 작가의 작품의 필요한데, 그 전에 여성 작가

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표면적으로 양적인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질적으로는 긍정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남성작가의 수나 여성작가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의 수를 늘려야 한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다양하고 더욱 유연한 인물을 원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그러한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해 학습하는 시기에 다양한 성역할 수행 모습에 대해 접해보아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다양한 인물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여성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하며, 집필진들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곳곳에서 남성 중심 사고 내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교과서의 내용이 아무리 양성평등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수업을 하는 것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사들에 대한 양성평등 가치관 교육을 통해 교실 수업 상황에서도 진정한 양성평등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적 가치관에 기초한 문학 교육의 기초는 성별의 이분법적인 분류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 ▣ 참고문헌

### <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교육과학기술부, 2009.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교육과학기술부, 2010.
- 김상욱 외, 『중학교 국어』 1-2, 창비, 2011.
-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 1-2, 교학사, 2011.  
\_\_\_\_\_, 『중학교 국어』 2-2, 교학사, 2011.  
\_\_\_\_\_, 『고등학교 국어』 상, 교학사, 2011.
- 문영진 외, 『고등학교 국어』 하, 창비, 2011.
- 박호영 외, 『고등학교 국어』 상, 유웨이, 2011.
- 오세영 외, 『중학교 국어』 2-1, 해냄, 2011.
- 우한용 외, 『고등학교 국어』 하, 두산, 2011.
- 윤희원 외, 『중학교 국어』 1-2, 금성출판사, 2011.  
\_\_\_\_\_, 『고등학교 국어』 하, 금성출판사, 2011.

### <단행본>

-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 김혜수·허혜경, 『청년발달』, 학지사, 2010.
- 박혜숙, 「여성과 자기서사」, 한국여성문학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 조옥라, 『젠더, 경험, 역사』, 서강대학교출판부, 2004.
-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9.
-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한철우, 『국어교육학 원론』, 박이정, 2003.

허혜경·박인숙, 『사회변동과 성역할』, 문음사, 2010.

<논문>

강진호, 「소설 교육과 타자의 지평」,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김애희,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분석」, 부산대 교육대학원, 2004.

김정자 외,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6.

김태정, 「학교 교육의 성차별 실태와 해소방안 연구」, 교원대 교육대학원, 2003.

김형덕 외,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나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서신미, 「중학교 소설 교재의 작중 인물 연구: 여성주의 비평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1999.

설민호, 「중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2005.

송선민, 「『외딴방』과 『새의 선물』의 비교 연구: 여성 성장소설의 측면에서」, 충남대 교육대학원, 2007.

심혜원,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나타난 인물의 성역할 분석」, 홍익대 교육대학원, 2005.

오재림·정해숙,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유문식, 「하근찬 소설 연구: 수난 양상 및 극복 방법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2003.

유정희, 「1990년대 여성 성장 소설 연구: 은희경 『새의 선물』과 신경숙

- 『외딴 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7.
- 이미향, 「중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 현대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2000.
- 이예진, 「미국과 한국의 영어교과서에 대한 양성평등적 비교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2007.
- 이정례,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제 6차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군산대 교육대학원, 2000.
- 이하영, 「국어교과서 속의 여성 인물 재현 양상 연구: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9.
- 임윤정, 「근대여성사적 측면에서 본 단발의 사회적 인식 변화: 개화기에서 1930년대까지」,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장순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국어교과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4.
- 장휘숙, 「인간발달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인간발달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2001.
- 전유선,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8.
- 정금자,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 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정아정, 「현행 중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3.
- 정해숙 외,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조사 및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정해숙·구정화·최윤정,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0.
- 정해숙·김연,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 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7.
- 정현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2006.
- 조남현, 「상록수 연구」, 『서울대 인문논총』, 서울대학교, 1996.
- 조선아, 「돌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모성: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조윤경,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돌봄의 의미화와 가족  
관계의 변화: 성인지 관점에서 본 남성 돌봄과 아버지됨의 재구성을 중  
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최정윤, 「사회교과서 집필자의 성차별적 태도가 교과서 내용의 성차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학년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

## Abstract

A Study of Gender role in revision textbook.

Cho, Yun-hee

Maj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2007 revision of the curriculum is intended for middle & high school language textbook of modern literature section has looked at the gender aspects. Novels in modern literature around Korea have seen that aspect, the target language contained in the body of texts examined in the center of the work. Select learning activities and learning, but it also covers many novels such cases contained in the body of work itself, rather than the contents of the article can help learning jugeona perform activities that help to see that role were excluded.

Feminist literature on education an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then examined for gender, education, and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s. This also means that education based on gender equality came gochalhaebo. Literature section for a reason, especially to target through the literature, because social situations can be read. Reflected in contemporary society can be read through the literature award based on

this textbook contained a fictional character in the discussion about gender roles is to their.

First look at the works prior to the author and the characters primarily by comparing the ratio of surface area examined whether listed how evenly. Textbooks of the language contained in previous work the artist was more than 90% male writers is not an exaggeration. Biased toward any one province be better if an author works with the students that their sex could give a higher value because In particular, the male writer, a profession that's more appropriate for men article or considered more valuable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post exposed on the surface, even in part if not looked at that there's sexism. By examining the language textbook authors are biased towards the male gender of the results came back, had it for a gender or sex discrimination because it can not conclude based on this, looked at each piece.

The number of language textbooks, because look at all of the work showing the works and a variety of fixed gender roles and gender roles by showing the work looked at a few selected pyeonssikeul. Fixed gender roles and the emergence of figures showing four episodes a piece, as opposed to a variety of work showing gender showed six episodes.

First person to perform a hyeonmoyangcheo fixed gender roles and ideologies of motherhood and the patriarchal ideology, showing her father's strong showing to show is the characters. Due to the nature of work contained in textbooks of various occupations, most students do

not like is the advent of. And learners are taught first, sex roles, given that the parent is through the mother and father is a meaningful thing to look at gender roles.

Six episode variety of work showing the initiative to gender. Jagajeok Woman, practical and social Woman, inner seongchaljeok women accompanied the award show and communicate the work of the negative, divided into small-and examined the expression of beliefs. Thus presenting the appearance of a variety of grade level, gender, adap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if the learning effect will be achieved.

Finally, the students of this paper a variety of conclusions about the impact of gender roles as well for the future of the proposed alternatives. What is more urgent need to achieve equality of ratios as quantitative, but even more importantly, to demonstrate a variety of gender roles more and more work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the textbooks.